



건설 지표 (2025.3)

▶ Analyst 송유림
3772-7152
yurim.song@hanwha.com

목 차

0. 건설업종 아웃퍼폼.....	02
1. 국내 건설지표.....	03
2. 해외 건설지표.....	10
3. 주가 및 밸류에이션.....	14
4. [첨부] 미국 주택지표.....	16

건설 (Positive)

3월: 건설업종 아웃퍼폼

국내: 주택 공급(Q) 증가 제한적

2025년 1월 국내 건설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31.4% 감소한 9.0조 원을 기록했다. 공공 건축을 제외한 전 부문 수주가 감소하며 발주부문별, 공종별 수주 실적이 모두 부진하게 나타났다. 한편, 선행지표인 건축허가 면적과 주택 인허가 실적은 1월에 각각 YoY -33.2%(주거 -23.6%, 비주거 -38.0%), -13.0%를 기록했다. 1월 건축 착공면적과 건설 기성액 또한 각각 32.6%, 26.8% 감소했다.

2024년 전국 아파트 분양은 25만 세대로 작년 21만 세대 대비 18% 많은 공급이 이루어졌으며, 2025년 분양 계획은 지난달 18만 세대에서 현재 18.7만 세대로 소폭 늘어났다. 대형 건설사 분양 계획 감안 시 올해 공급 물량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1월 미분양은 전월대비 2451세대 증가한 72624세대로 두 달 연속 증가했으나 지방은 이달 들어 다시 감소했다. 한편, 1월 준공 후 미분양은 22872세대로 전월대비 1392세대 늘어남에 따라 18개월째 증가를 기록 중이다

해외: 2025년 수주 목표 긍정적

2025년 1월 MENA지역 프로젝트 계약액은 295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5.9% 감소했고, 국내 건설사의 2025년 2월 누계 해외수주는 47.5억 달러로 전년대비 121% 증가했다. 국내 건설사 주요 수주 프로젝트로는 삼성E&A의 UAE Taziz 석화(2.5조 원), 현대건설의 사우디 송전선로(0.5조 원) 등이 있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올해 해외수주 목표는 전년대비 35% 증가한 500억 달러이며, 주요 5개 건설사(현대건설, 삼성E&A, 대우건설, GS건설, DL이앤씨)의 올해 해외 수주목표 또한 전년대비 11.7% 높게 제시됐다.

건설업 투자전략

건설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Positive(긍정적)'로 유지한다. 주택시장 회복은 단기간 내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기 어려워 보이나, 건설사 실적은 대형 업체들을 중심으로 이익 개선의 방향성을 확실히 잡았다. 다만,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물량(Q)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각 사별 실적 개선의 강도와 지속성에는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장기 실적 개선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확실한 투자포인트를 보유한 업체를 선호하며, 업종 내 최신후주로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을 제시한다.

0. 건설업종 아웃퍼폼

건설 업종의 아웃퍼폼

연초 이후 건설업종의 아웃퍼폼이 지속되고 있다. 건설업 YTD 주가 수익률은 +18.1%로 KOSPI의 +7.1%를 11%p 앞서고 있다. 지난 4분기 실적 발표가 주가 반등의 계기가 됐다. 3년 간의 영업이익 감소를 끝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이익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가운데 몇몇 건설사가 긍정적인 영업이익 가이드언스를 제시함으로써 이익 개선 전망에 힘을 실었다.

1분기부터 시작될 이익 턴어라운드 확인

이에 따라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는 이익 턴어라운드의 여부와 강도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시장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YoY, QoQ 이익 개선이 기대되는 업체는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며, DL이앤씨는 YoY 개선을, 현대건설을 QoQ 흑자전환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대우건설과 삼성E&A는 이익 감소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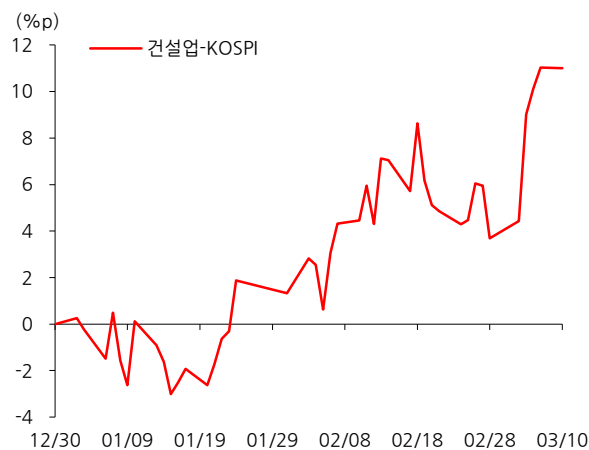
모멘텀 요소들도 고려할 필요

이익 개선의 방향성이 확인되는 과정에서는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멘텀적인 요소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예컨대, 원전이나 러-우 종전 등의 이벤트 플레이에서 그간 대형 건설주는 철저히 배제되어 왔는데, 이는 본업에서의 실적 부진과 이에 따른 재무 리스크 등이 발목을 잡은 영향이다. 그러나 올해 초 실적의 바닥이 확인된 이후로는 주가 움직임이 확연하게 가벼워진 모습이다.

2~3년 뒤를 바라본다면 좀 더 쉬운 정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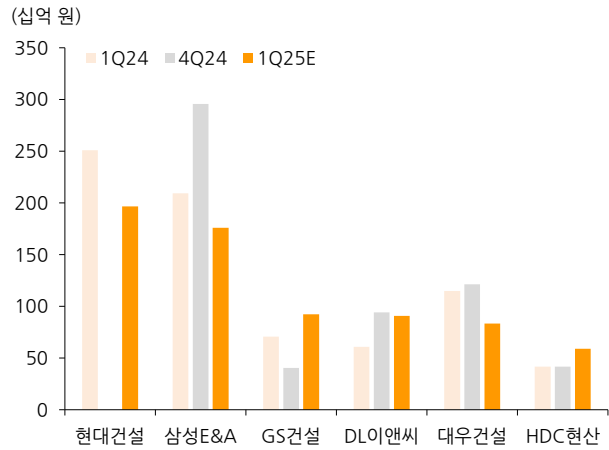
다만, 올해에도 원가 상승 및 미분양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고, 주택시장 회복이 더딘 영향으로 2026~27년에도 업황(Q)에 기대 실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적인 사업 전략으로 중장기 실적 개선의 발판을 마련해 놓은 회사들에 대한 선별적인 접근이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업종 내 최선호주로는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을 제시한다.

[그림1] 건설업-KOSPI 주가 수익률 괴리



주: 3월 10일 종가 기준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주요 건설사 '25년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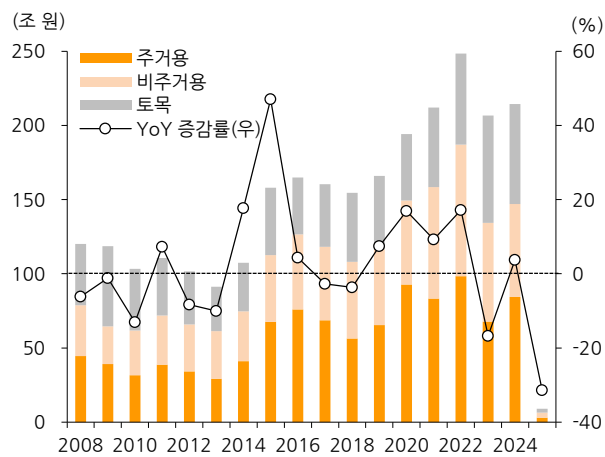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 국내 건설지표

(1) 선행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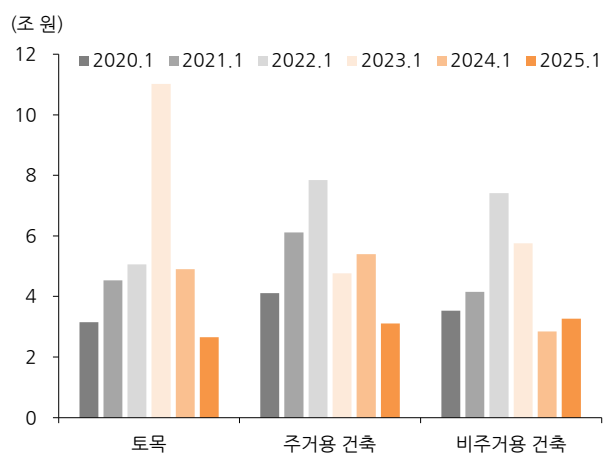
2025년 1월 국내 건설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31.4% 감소한 9.0조 원을 기록했다. 공공 건축을 제외한 전 부문 수주가 감소하며 발주부문별, 공종별 수주 실적이 모두 부진하게 나타났다. 공공 부문의 주거용 건축 수주는 작년 9월 이후 높은 증가율이 지속되고 있다. 세부 공종별로는 공장/창고 수주가 가장 컸는데, 주요 수주로는 현대자동차 MACC 건설 증액(0.44조 원), 청주 M8 HBM 라인(0.4조 원), 화성 기아 LW공장 증액(0.33조 원), P5-Project 바이오플랜트(0.26조 원), 평택 신공장 및 CDC 자동화창고 증액(0.24조 원) 등이 있었다. 한편, 선행지표인 건축허가 면적과 주택 인허가 실적은 1월에 각각 YoY -33.2%(주거 -23.6%, 비주거 -38.0%), -13.0%를 기록했다.

[그림3] 국내 건설 수주액: 2025년 1월 YoY -31.4%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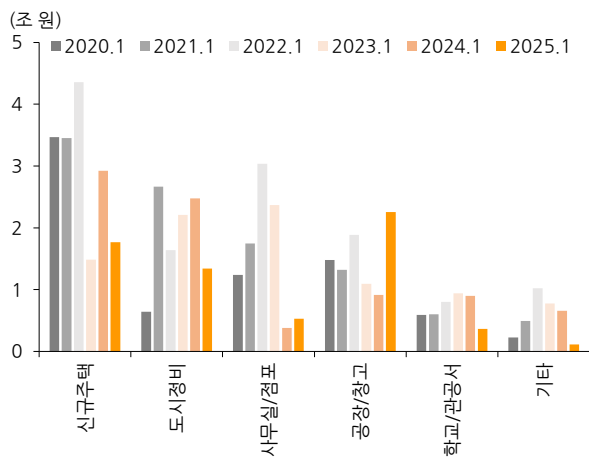
자료: 대한건설협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국내 건설수주 부문별 현황(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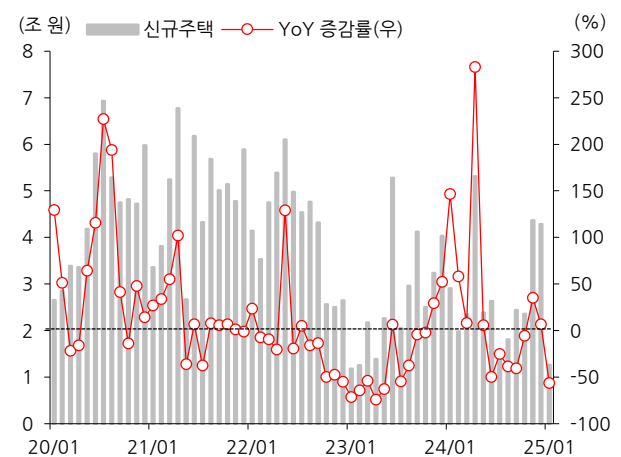
자료: 대한건설협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건축부문 세부공종별 수주 현황(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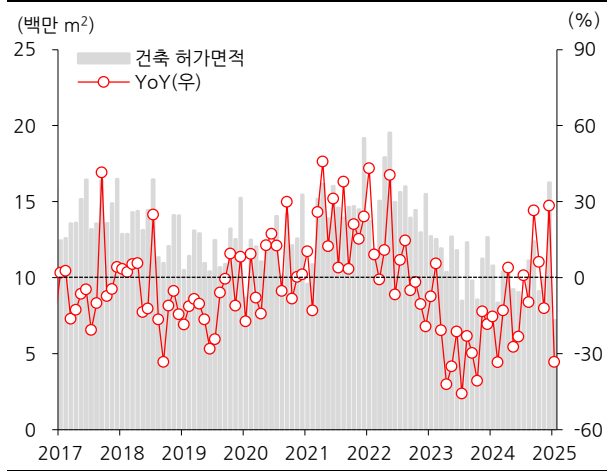
자료: 대한건설협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민간 신규주택 수주 월별 추이: '25년 1월 YoY -5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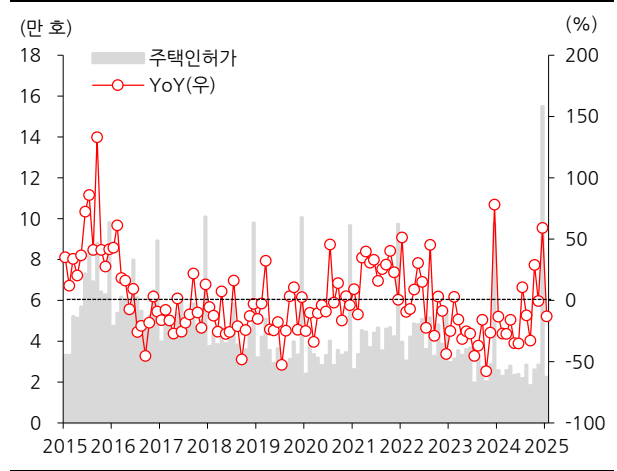
자료: 대한건설협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건축 허가면적: 2025년 1월 YoY -33.2% 기록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주택 인허가: 2025년 1월 YoY -13.0%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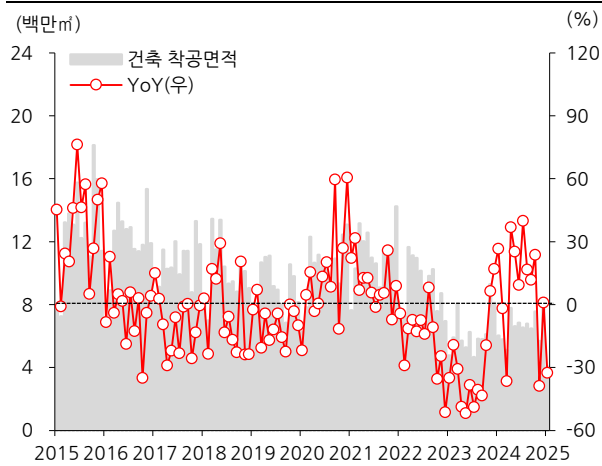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 동행지표

1월 건축 착공면적은 전년 동기대비 32.6% 감소했다. 주거용 착공면적은 YoY -42.2%를, 비주거용 착공면적은 -26.9%를 기록했다. 1월 착공면적 기준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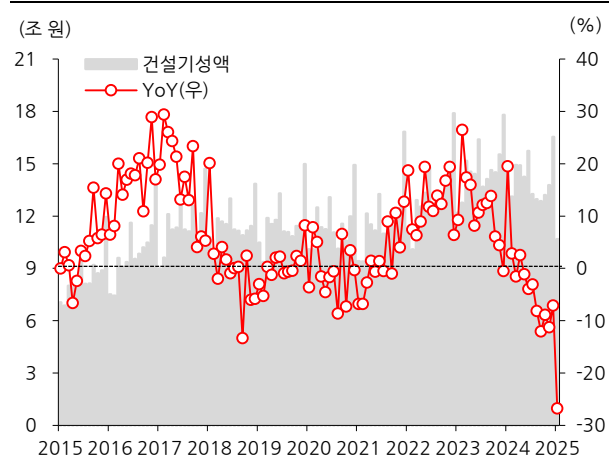
건설 기성액은 작년 3월 이후 감소세로 접어들어 그 폭이 점차 확대되는 중이다. 작년 2분기 1.0% 감소로 전환된 이후 3~4분기에는 각각 -7.9%, -9.0를 기록했으며, 올해 1월은 -26.8%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건축 착공면적이 2022~23년 각각 18%, 32%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건설 기성액은 올해 감소가 가장 집중될 전망이다.

[그림9] 건축 착공면적: 2025년 1월 YoY -32.6%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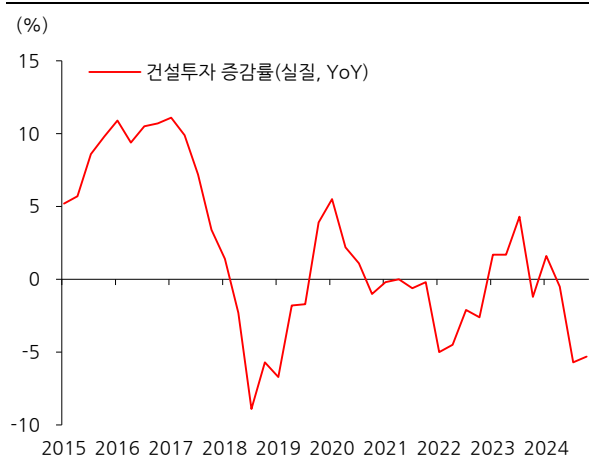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건설 기성액: 2025년 1월 YoY -26.8%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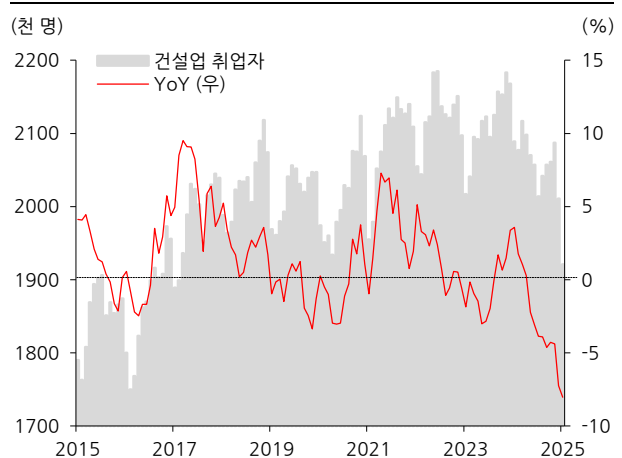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건설 투자 증감률: '24년 4분기 YoY -5.3% 기록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건설업 취업자 동향: 2025년 1월 YoY -8.0%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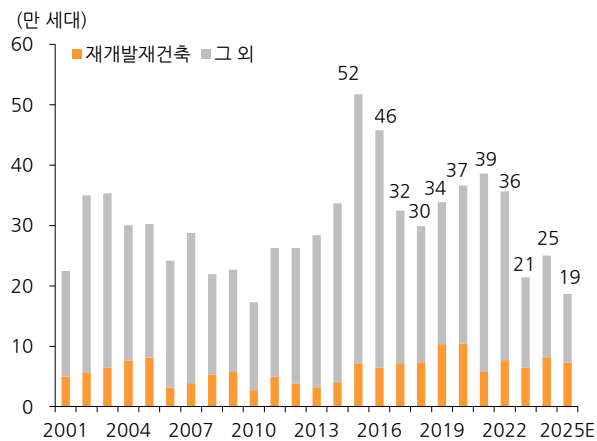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3) 주택 분양 지표

2024년 전국 아파트 분양은 25만 세대로 작년 21만 세대 대비 18% 많은 공급이 이루어졌으며, 2025년 분양 계획은 지난달 18만 세대에서 현재 18.7만 세대로 소폭 늘어났다. 공급 계획의 변동 가능성이 있으나, 대형 건설사 분양 계획 감안 시 올해 공급 물량 증가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유형별로는 재개발재건축의 비중이 확대되는 것이 특징인데, 2024년 재개발재건축 분양 물량 비중은 역대 최대 수준인 32%대로 확대됐으며, 올해 계획 상 그 비중이 40%에 육박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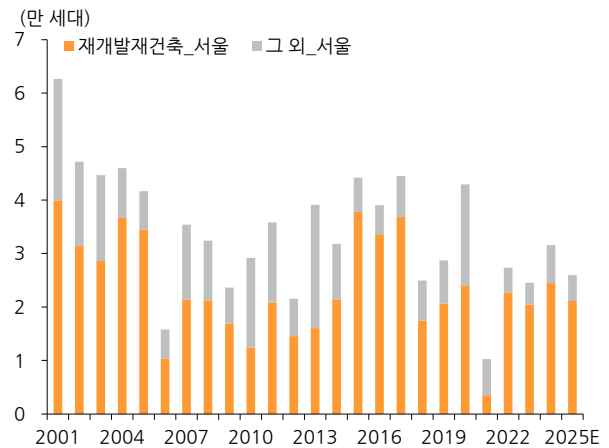
한편, 1월 미분양은 전월대비 2451세대 증가한 7262세대를 기록했다. 지난 1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미분양 물량이 증가했다. 다만, 수도권은 9월 이후 미분양 증가가 이어져 오고 있는 반면, 지방은 지난 달 5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가 이달 들어 다시 감소했다. 한편, 1월 준공 후 미분양은 22872세대로 전월대비 1392세대 늘어남에 따라 18개월째 증가를 기록 중이다.

[그림13] 아파트 분양공급 추이 및 계획: '25년 18.7만 세대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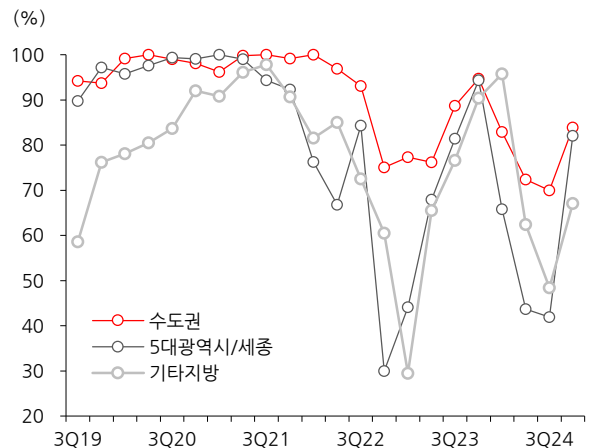
자료: 부동산 114,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서울 아파트 분양공급 추이 및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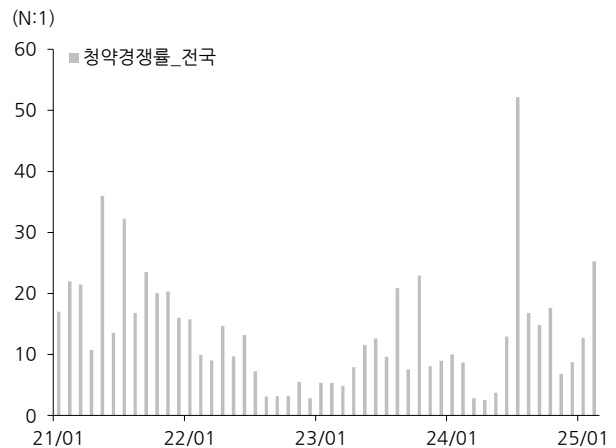
자료: 부동산 114,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민간아파트 평균 초기분양률(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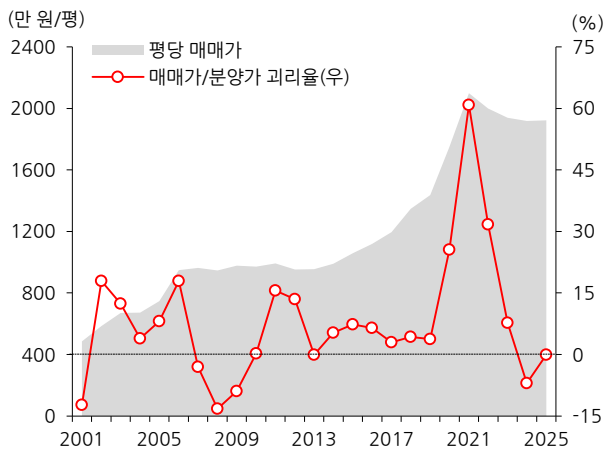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전국 청약경쟁률 추이(1~2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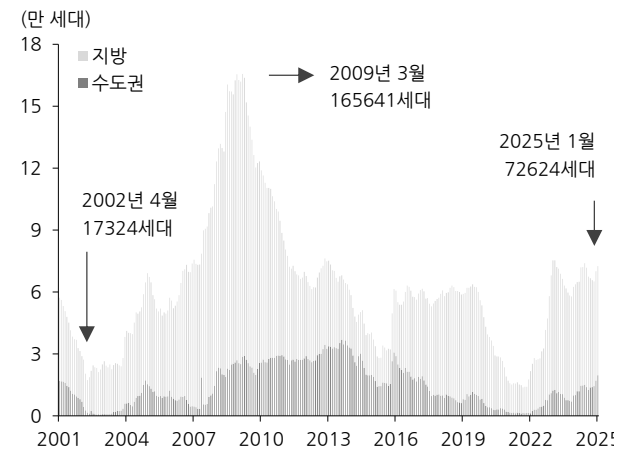
자료: 부동산114,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7] 전국 아파트 분양가 대비 매매가 괴리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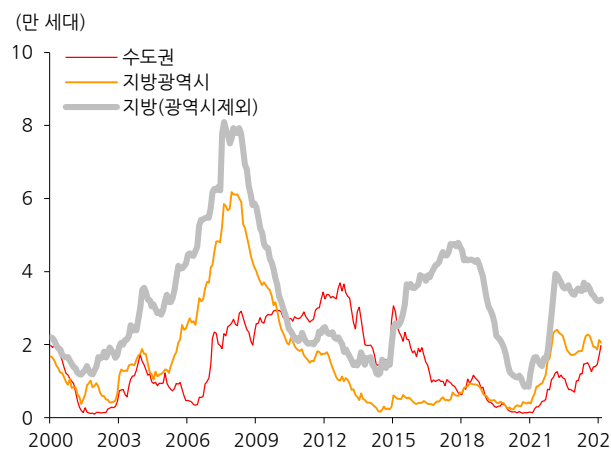
자료: 부동산114,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8] 전국 아파트 미분양 세대수: 전월비 2451 세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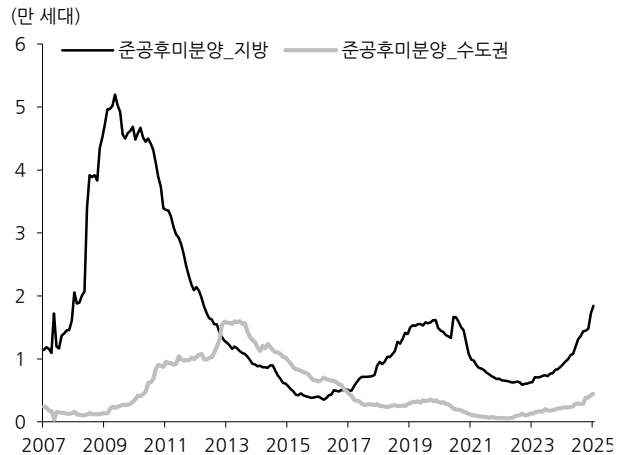
자료: 부동산114,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9] 지역별 아파트 미분양 추이: 지방 전월비 300 세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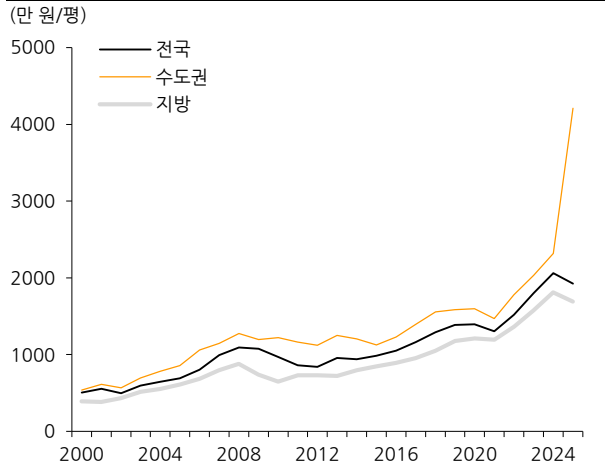
자료: 부동산114,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0] 전국 아파트 준공 후 미분양: 전월비 1392 세대 증가



자료: 부동산114,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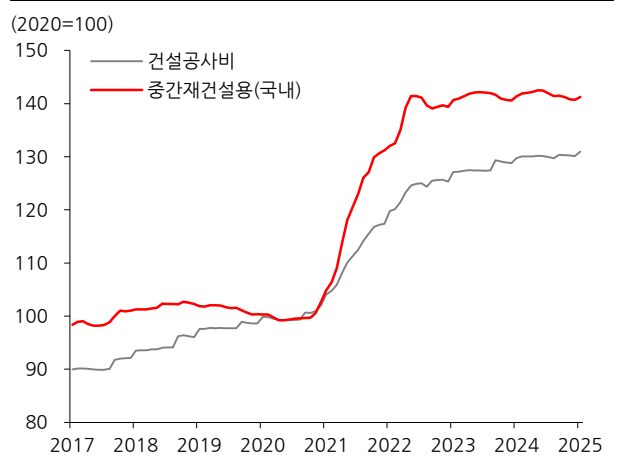
[그림21] 전국 아파트 분양가 추이



주: 수도권 분양가 급상승은 '25년 2월 래미안 원페를라 분양 영향

자료: 부동산114,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2] 건설공사비 및 건설용 자재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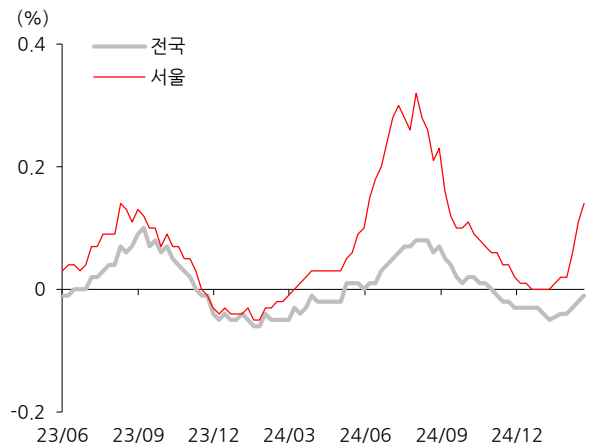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4) 주택 거래 지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변동률은 가계대출 관리 등의 영향으로 작년 9월 이후 상승폭이 둔화돼 11월 중순에는 하락 전환했다. 다만, 2월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전세 가격도 상승 전환했다. 이에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폭이 축소됐으며, 지방도 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락폭이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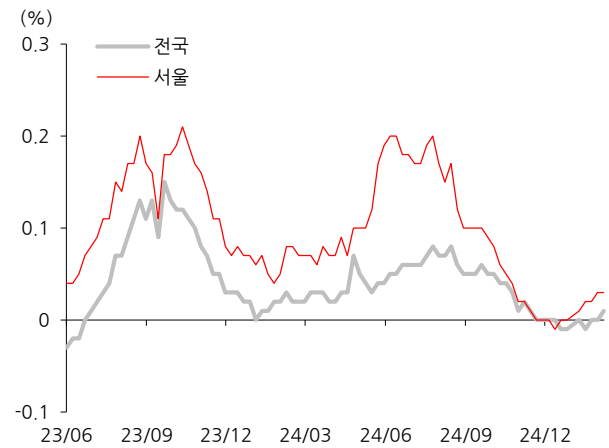
한편, 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11% 감소했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 및 그 외 주택이 각각 YoY -7.2%, -21.8%를 기록했다. 한편,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는 323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1.6% 늘었으나, 월별로는 7월 9518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6개월 연속 감소를 이어갔다.

[그림23]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주간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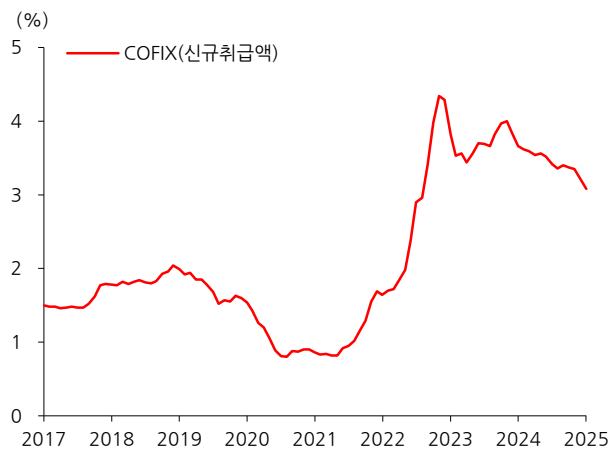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4]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주간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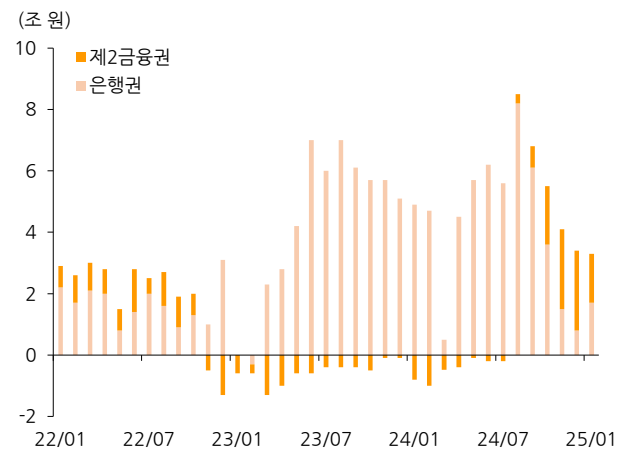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5] COFIX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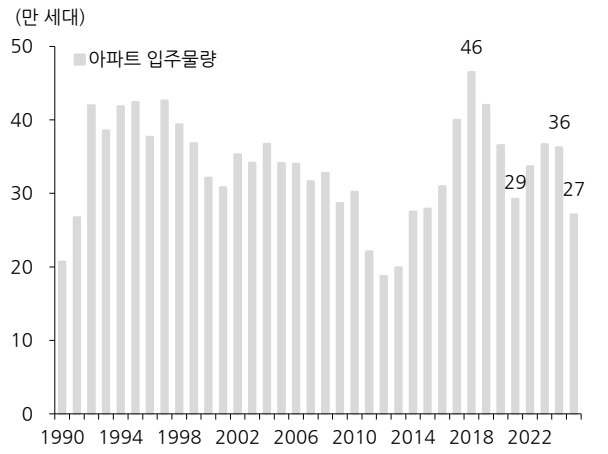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6] 주택담보대출 MoM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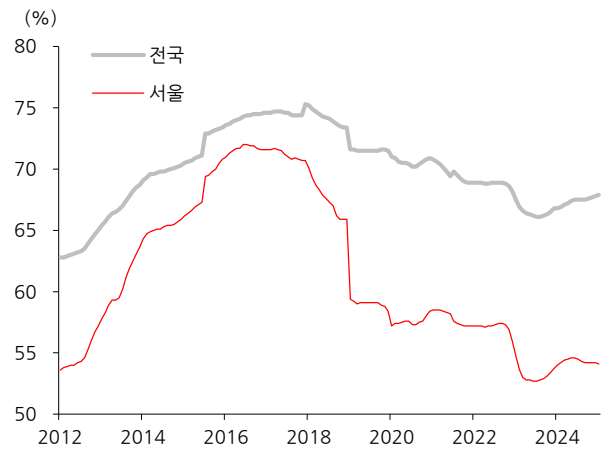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7] 아파트 입주물량 추이: 2025년 27만 세대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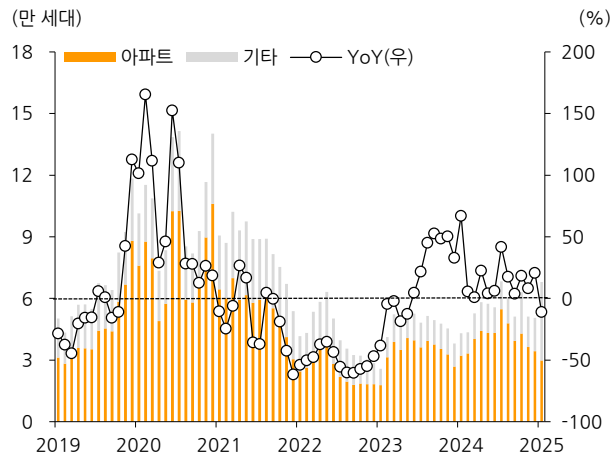
자료: 부동산114,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8]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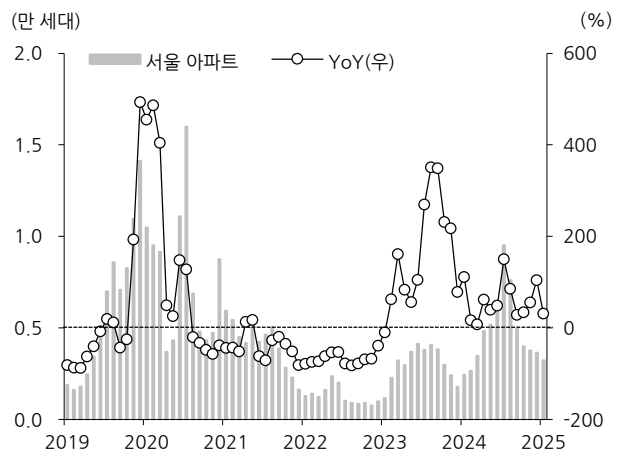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9] 주택 매매거래량: 1월 YoY -10.9% 기록



자료: 한국부동산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0] 주택 매매거래량 - 서울 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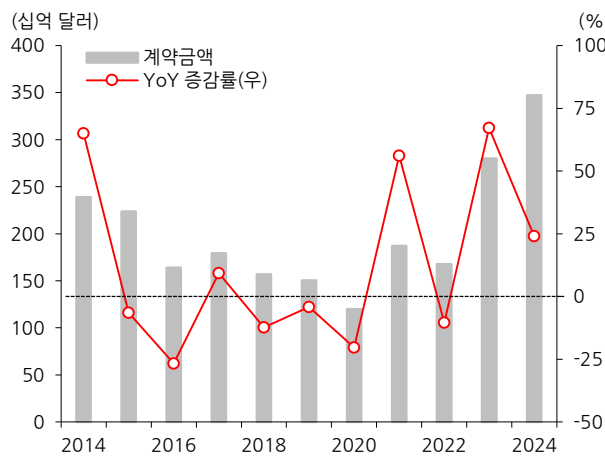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 해외 건설지표

(1) 중동 발주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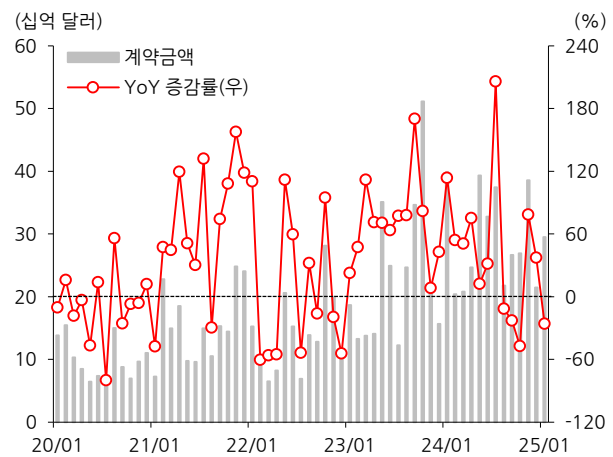
2025년 1월 MENA지역 프로젝트 계약액은 295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5.9% 감소했다. 2024년에는 YoY +24%를 기록했다. 1월 계약금액 중 공종별로는 Power와 Industrial 프로젝트가 각각 35.0%, 22.1%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국가별로는 UAE 43.4%, 모로코 21.7%, 사우디아라비아 10.1% 순이었다. 이 중 국내 건설사 수주 프로젝트는 쌍용건설의 두바이 이머시브 타워(2.2억 달러), 삼성E&A의 사우디 모듈러 탄소 포집(파트너십 체결)이 있었다.

[그림31] MENA 지역 발주금액: 2024 년 YoY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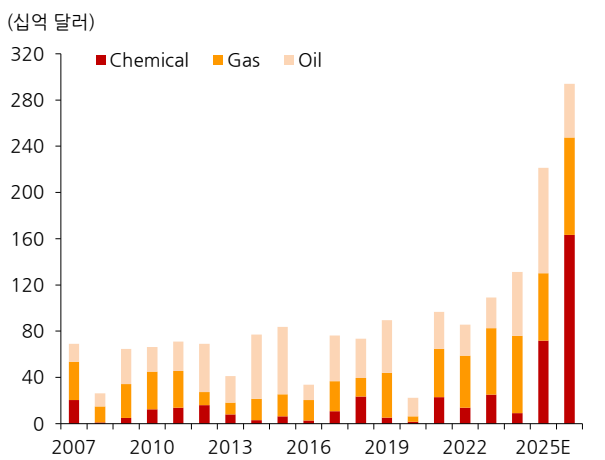
자료: MEED Project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2] MENA 지역 발주금액 월별 추이: 1 월 YoY -26%



자료: MEED Project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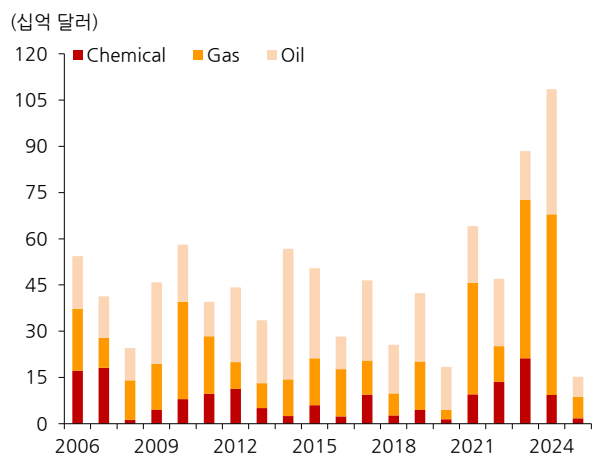
[그림33] MENA 주요 7 개국 예산액 추이(석유가스)



주: '25년 3월 초 기준

자료: MEED Project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4] MENA 주요 7 개국 발주금액 추이(석유가스)



주: '25년 3월 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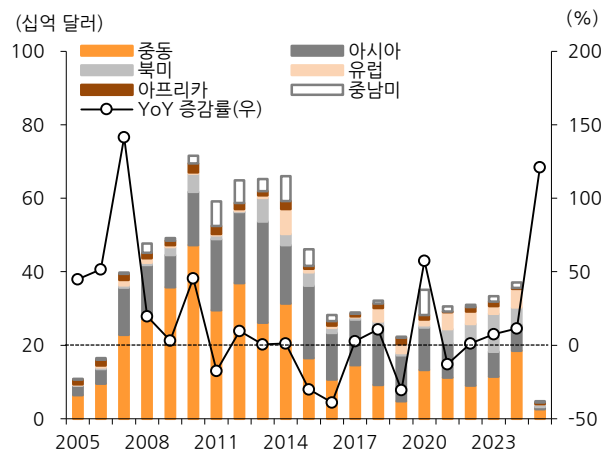
자료: MEED Projects,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 국내 건설사 해외 수주

2025년 2월 누계 해외수주는 47.5억 달러로 전년대비 121% 증가했다. 업체별로는 삼성E&A 17억 달러, 현대엔지니어링 8억 달러, 현대건설 7억 달러, 대우건설 3억 달러 순이다. 지역별로는 중동이 54%, 공중별로는 플랜트가 52%로 비중이 가장 크며, 국가별로는 UAE 19억 달러, 미국 8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5억 달러, 파나마 4억 달러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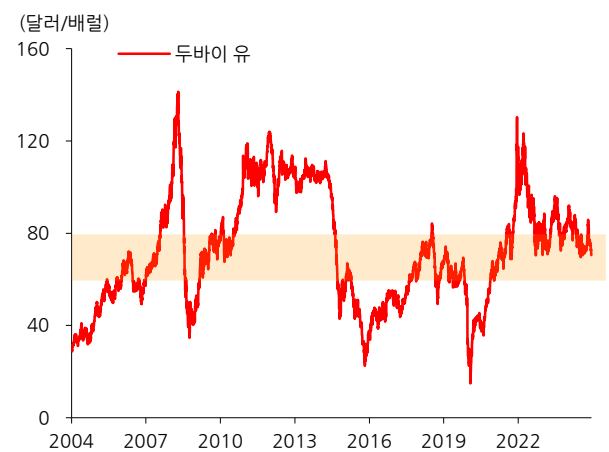
국내 건설사 주요 수주 프로젝트로는 삼성E&A의 UAE Taziz 석화(2.5조 원), 현대건설의 사우디 송전선로(0.5조 원) 등이 있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올해 해외수주 목표는 전년대비 35% 증가한 500억 달러이며, 주요 5개 건설사(현대건설, 삼성E&A, 대우건설, GS건설, DL이앤씨)의 올해 해외 수주목표 또한 전년대비 11.7% 높게 제시됐다.

[그림35] 국내 건설사 해외수주: 2025년 2월 누계 YoY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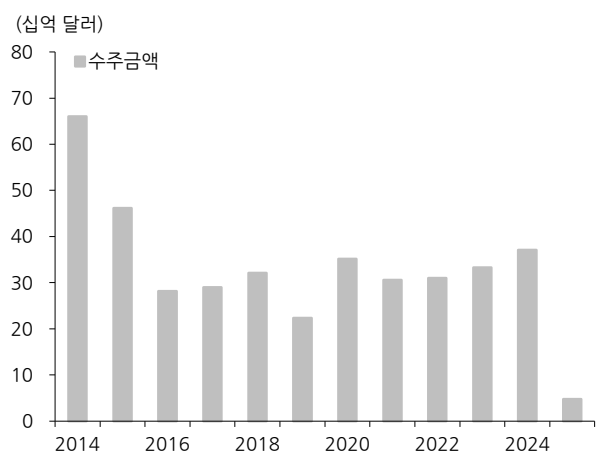
자료: 해외건설협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6] 두바이유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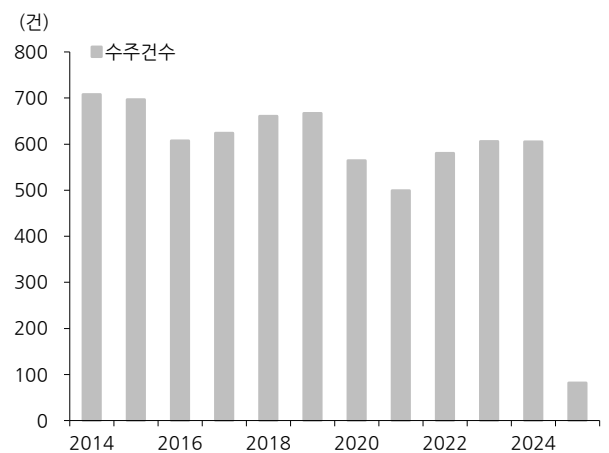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7] 국내 건설사의 해외수주 성과(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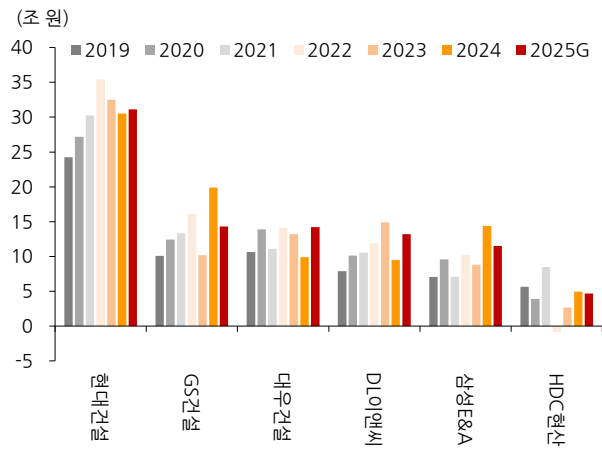
자료: 해외건설협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8] 국내 건설사의 해외수주 성과(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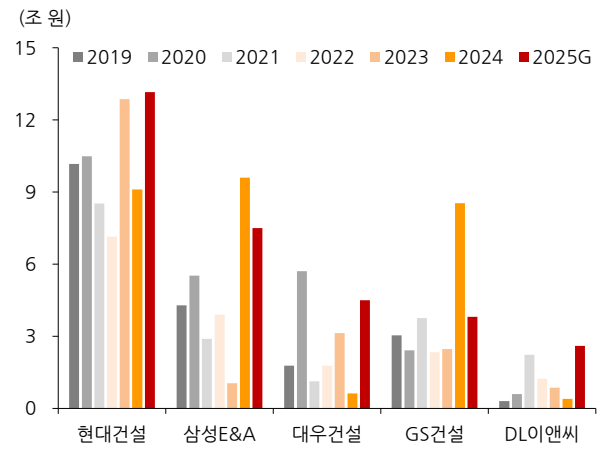
자료: 해외건설협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9] 주요 건설사 총 신규수주 추이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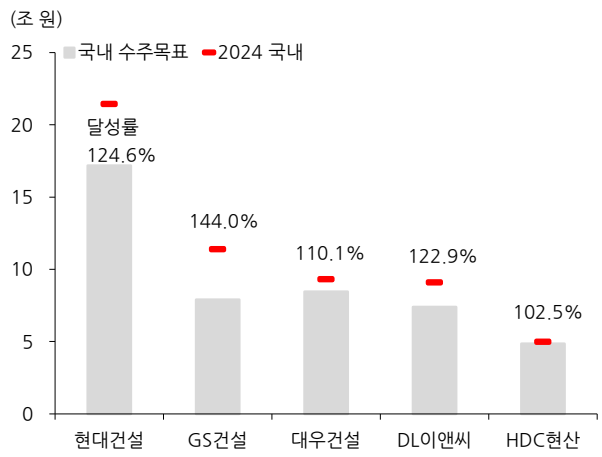
자료: 각 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0] 주요 건설사 해외수주 추이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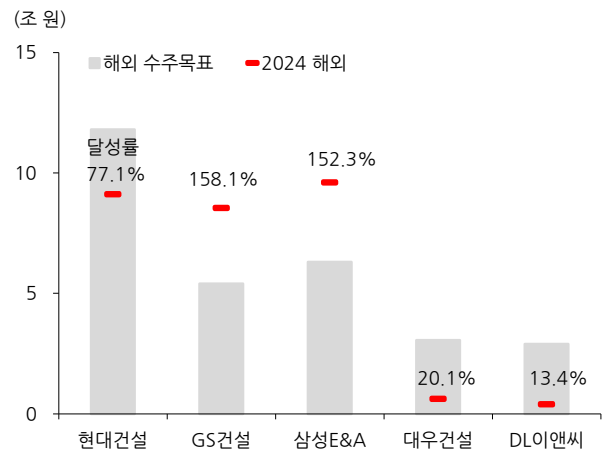
주: 삼성E&A 화공 부문 / 자료: 각 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1] 주요 건설사 국내 수주 목표 달성률: 합산 기준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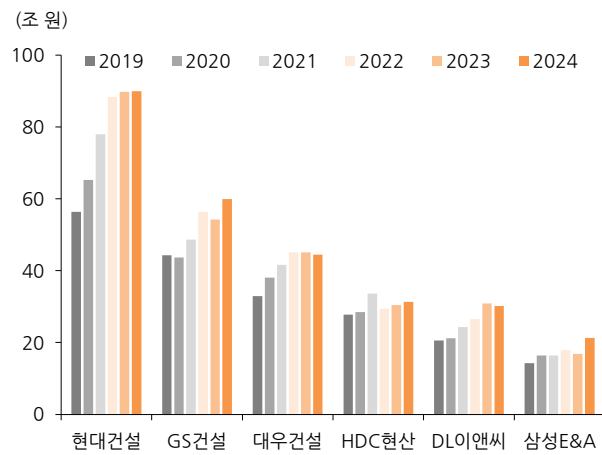
주: 연결 기준, DL이앤씨 수주 목표는 당사 가정, 삼성E&A는 화공/비화공 구분
자료: 각 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2] 주요 건설사 해외 수주 목표 달성률: 합산 기준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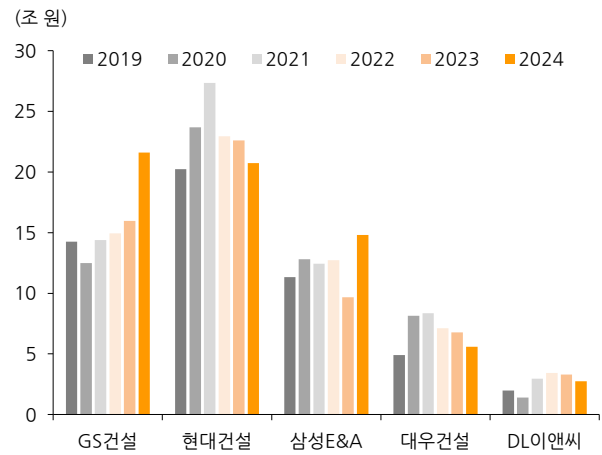
주: 연결 기준, DL이앤씨 수주 목표는 당사 가정, 삼성E&A는 화공/비화공 구분
자료: 각 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3] 주요 건설사 전체 수주잔고 추이



자료: 각 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4] 주요 건설사 해외 수주잔고 추이



자료: 각 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1] 2025년 해외수주 목표 및 수주 파이프라인

건설사	프로젝트명	규모	수주시기	비고
현대건설 [목표 13.1조 원]	2025년 수주 목표	13.1조 원		별도 7.5조 원, 현대엔지 5.6조 원
	사우디 송전선로	0.5조 원	'25.2	기 수주
	이라크 해수처리시설	35억 달러	2Q25	단독 시공협상 중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 설비개선	1.1억 달러	2Q25	
	(엔지) 유럽 공사	2조 원	3Q25	단독 MOU 체결, 설계 진행 중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7,8호기	70억 달러	4Q25	사전설계 수행 중
	파푸아뉴기니 LNG	14억 달러	4Q25	w/ JGC, FEED완료, FID 대기 중
	(엔지) CIS 국가 2개 프로젝트	합산 4조 원	2025	단독 협상진행 중
	사우디 LTC Ph2	30억 달러	2026	FEED 결과 대기중(1Q25)
	사우디 블루암모니아	31억 달러	2026	FEED 경쟁 중
삼성E&A [목표 7.5조 원]	2025년 수주 목표	7.5조 원		화공 수주목표(당사 추정)
	UAE Taziz 석화	2.48조 원	'25.1	기 수주
	사우디 SAN-6 블루암모니아	30억 달러	1H25	
	카타르 NGL-5	30억 달러	2H25	
	이 외 총 7개 안건	156억 달러	2025	
대우건설 [목표 4.5조 원]	2025년 수주 목표	4.5조 원		해외 수주목표(당사 추정)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 비료	미정	2Q25	'24.10 LOA 수령
	리비아 인프라 재건	0.9조 원	2Q25	
	이라크 알포 해군기지	1.8조 원	2Q25	
	체코 원자력 발전	미정	3Q25	'24.7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라크 공군기지	1조 원	2025	
	나이지리아 Indorama 신규	미정	2025	
GS건설 [목표 3.8조 원]	2025년 수주 목표	3.8조 원		신사업 포함 수주목표
	UAE North-East Bab P5	20억 달러	1H25	
	호주 인프라	미정	1H25	다수 프로젝트
DL이앤씨 [목표 2.6조 원]	신사업 이니마	2.34조 원	2025	다수 프로젝트
	2025년 수주 목표	2.6조 원		
	비중동 암모니아 비료	1.6조 원	2025	
	동남아 발전	0.5조 원	2025	
	동남아 토목 2건	0.5조 원	2025	필리핀, 인도네시아

주: 삼성E&A 화공 수주, 대우건설 해외 수주 목표는 당사 추정치

자료: 각 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3. 주가 및 밸류에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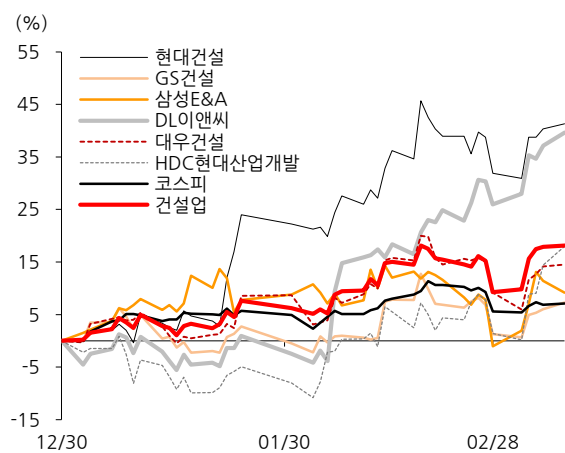
KOSPI 건설업
YTD 주가수익률 +11.0%

2025년 건설업 YTD 주가 수익률은 +18.1%로 KOSPI의 +7.1%를 11.0%p 아웃퍼폼 중이다. 건설업과 KOSPI의 주가 괴리는 4분기 실적 발표가 이뤄지면서 점차 벌어지기 시작했다. 종목별로는 긍정적인 영업이익 가이드를 제시한 현대건설과 DL이앤씨의 주가가 각각 YTD +41.3%, +39.7%로 가장 양호했다.

건설업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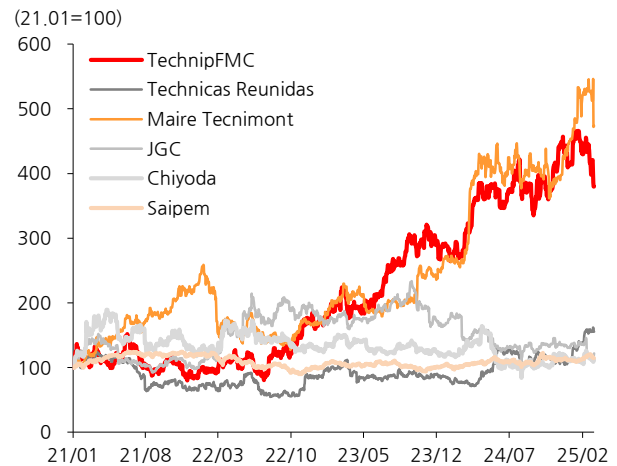
건설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Positive(긍정적)'로 유지한다. 주택시장 회복은 단기간 내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기 어려워 보이나, 건설사 실적은 대형 업체들을 중심으로 이익 개선의 방향성을 확실히 잡았다. 다만,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물량(Q)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각 사별 실적 개선의 강도와 지속성에는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장기 실적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확실한 투자포인트를 보유한 업체를 선호하며, 업종 내 최선호주로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을 제시한다.

[그림45] 국내 주요 건설사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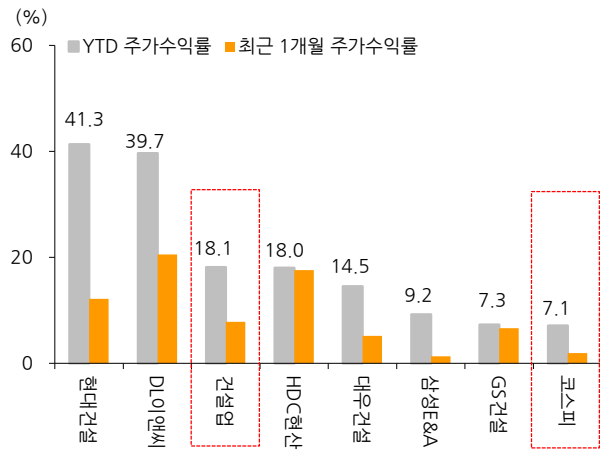
주: 3월 10일 종가 기준 /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6] 해외 주요 건설사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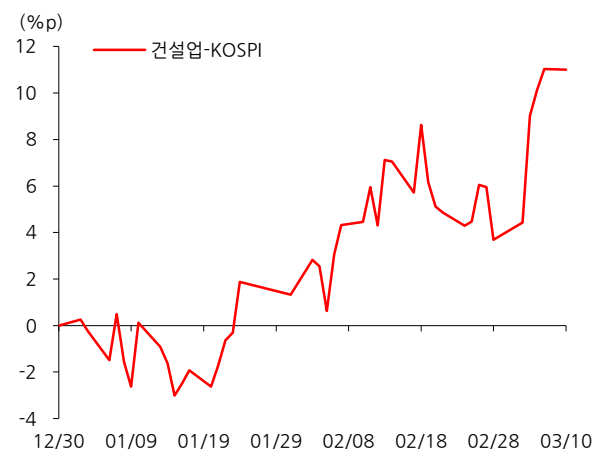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7] 주요 건설사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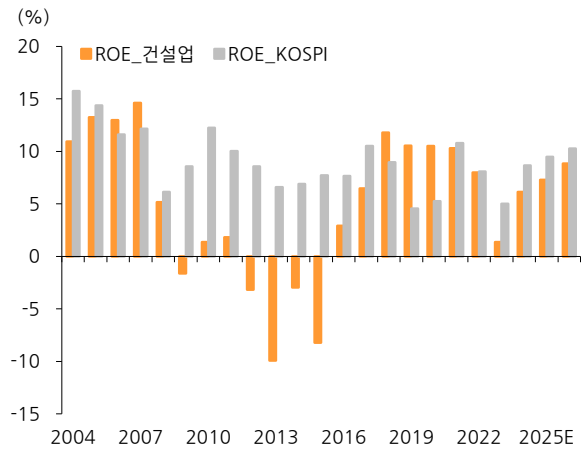
주: 3월 10일 종가 기준 /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8] 건설업과 코스피와의 주가 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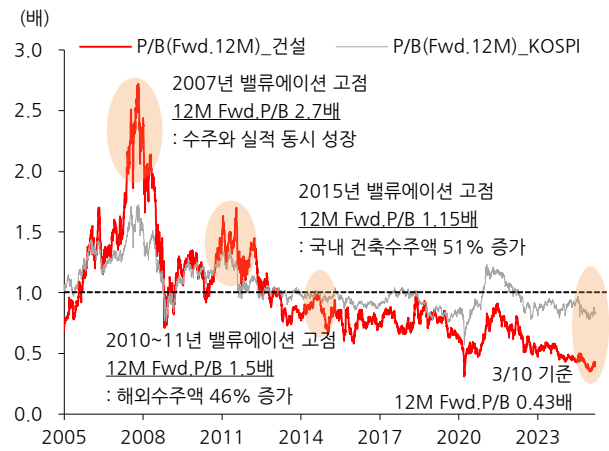
주: 3월 10일 종가 기준 /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9] KOSPI와 건설업 ROE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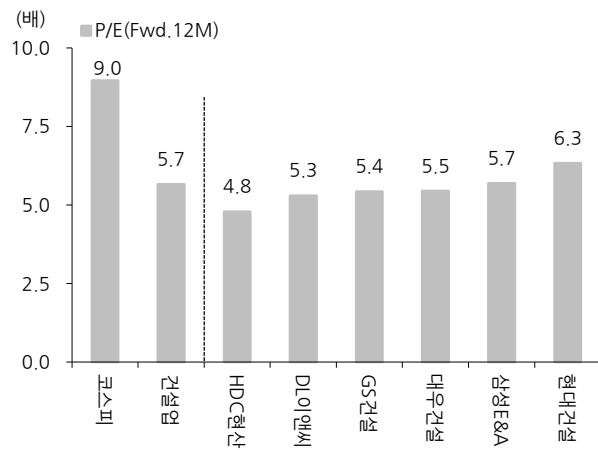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0] KOSPI 건설업 밸류에이션 추이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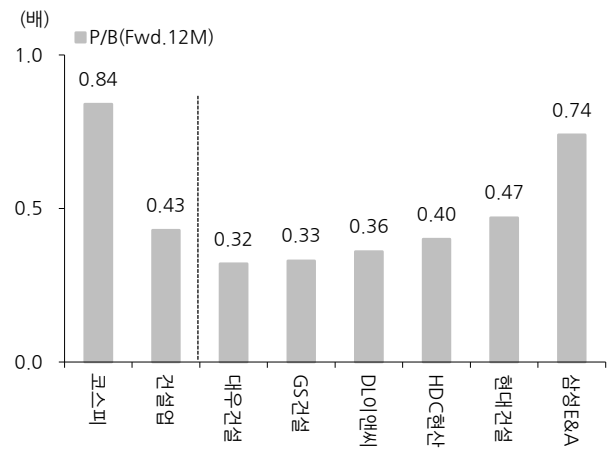
[그림51] KOSPI와 주요 건설사 12M Fwd. P/E



주: 3월 10일 종가 기준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2] KOSPI와 주요 건설사 12M Fwd. P/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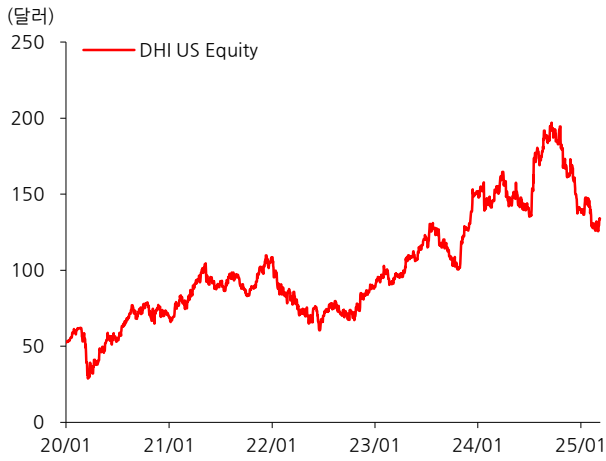


주: 3월 10일 종가 기준

자료: Wisefn,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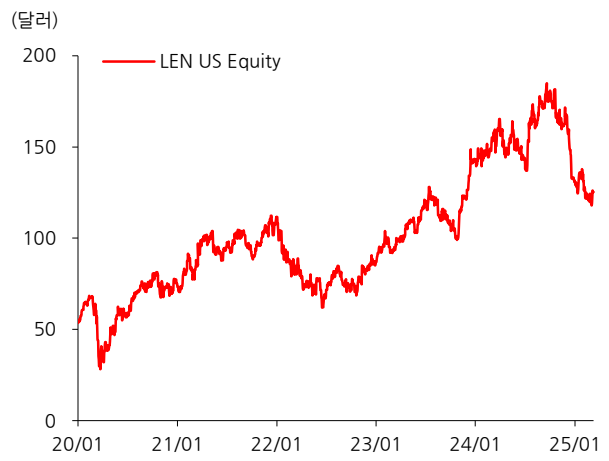
4. [첨부] 미국 주택지표

[그림53] 미국 DR Horton (NYSE: DHI)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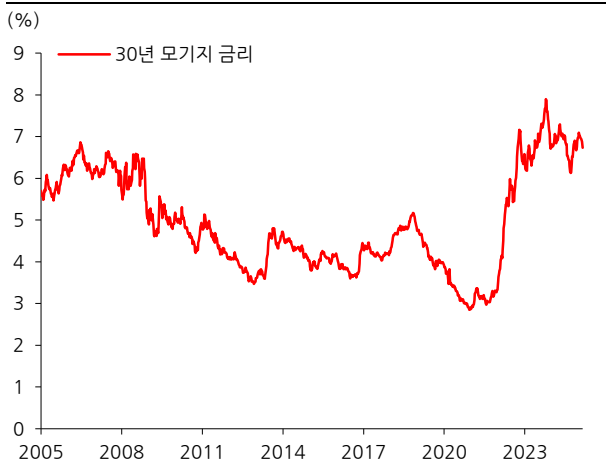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4] 미국 Lennar (NYSE: LEN)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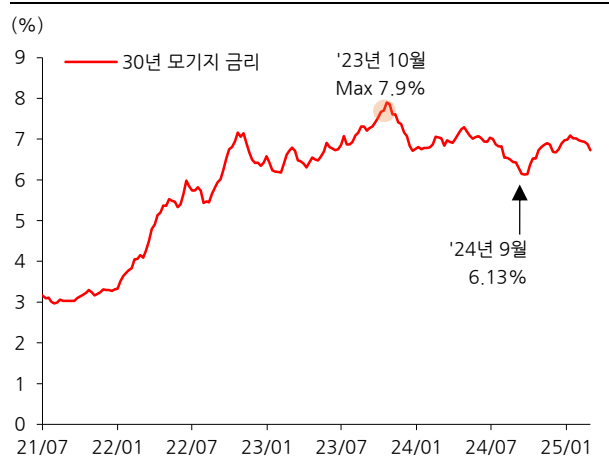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5] 미국 30년 모기지 금리 장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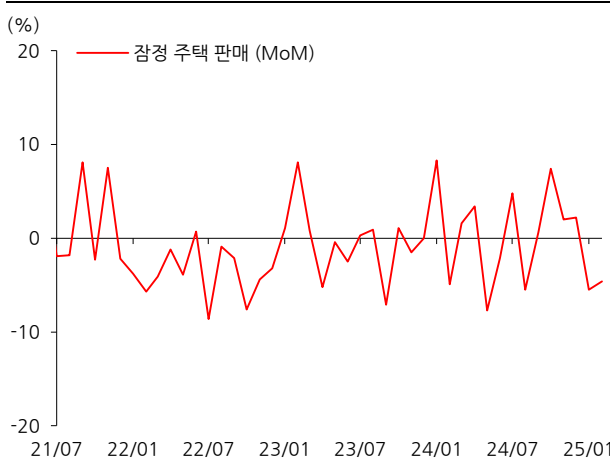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6] 미국 30년 모기지 금리 최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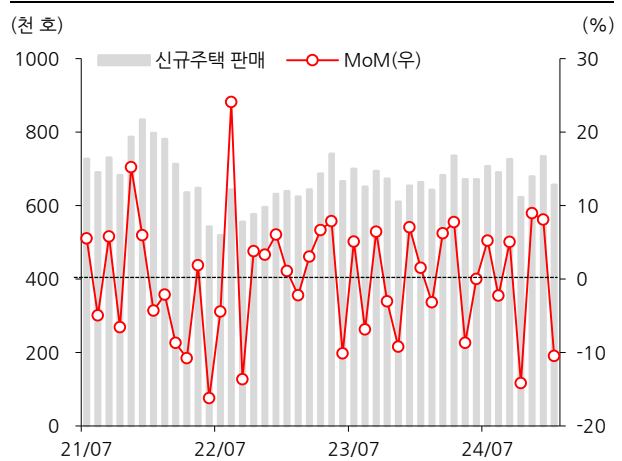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7] 미국 잠정주택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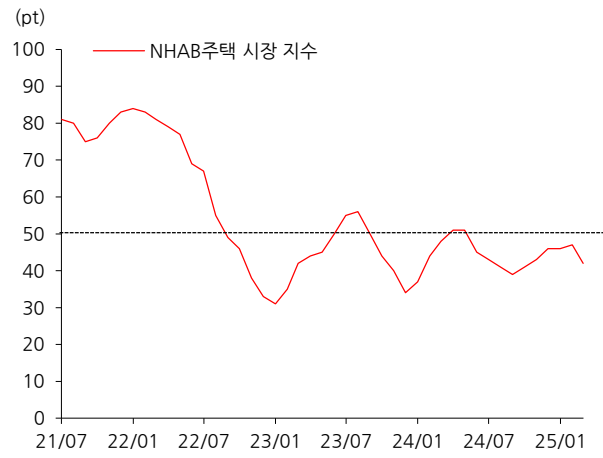
자료: NAR,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8] 미국 신규주택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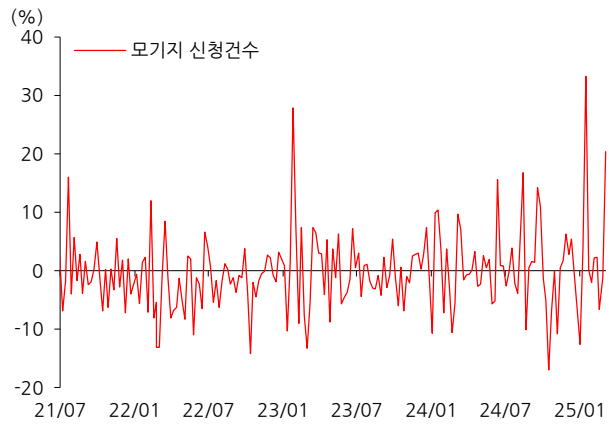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9] 미국 NHAB 주택 시장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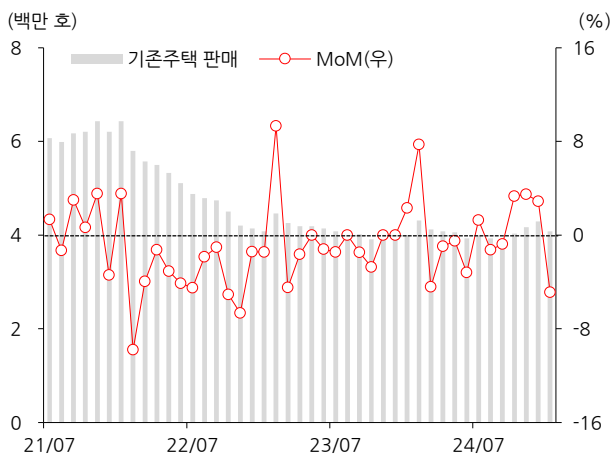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0] 미국 모기지 신청 건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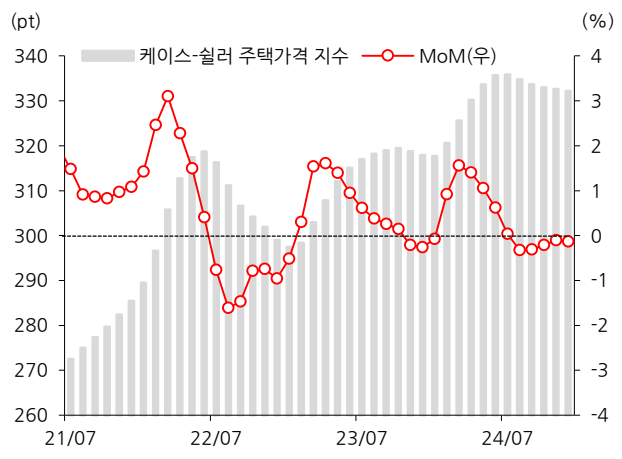
주: 전주대비 증감률 / 자료: MBA,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1] 미국 기존주택 판매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2] 미국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공표일: 2025년 3월 11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송유림)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지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종목 투자등급]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 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산업 투자 의견]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기준일: 2024년 12월 31일)

투자등급	매수	중립	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92.0%	8.0%	0.0%	100.0%